

폐 전이 유두상 갑상선암의 임상양상과 예후인자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,¹⁾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외과학교실²⁾

남기현¹⁾ · 윤종호²⁾ · 장항석¹⁾ · 박정수¹⁾

목적 : 유두상 갑상선암은 경부 국소 림프절 전이가 빈번하나 생존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. 그러나 원격 전이가 발생하면 불량한 예후를 보이며 원격 전이 장기 중에는 폐가 가장 호발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. 저자들은 폐 전이 유두상 갑상선암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예후인자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86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에서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2832예 중 폐 전이가 판명된 51예(1.8%)를 대상으로 후향적인 연구를 하였다. 원발 유두상암의 임상 양상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, 수술방법, 수술후 보조치료, 폐 전이 시기, 폐 이외의 타장기 병발, 폐 전이병소의 방사성 요오드 전신촬영의 흡착, 폐 전이 치료법의 요인들을 조사하였으며, 이에 따른 생존율은 Kaplan-Meier 방법으로 구하여 log rank test로 검증하였고 다변량 분석은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. $p < 0.05$ 의 범위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.

결과 : 대상군의 남녀비는 26:25이었고 유두상 갑상선암 진단시 45세 미만인 경우가 20예(39%)였고 나머지 31예(61%)는 45세 이상였으며 평균 연령은 45세(8~79)이었다. 평균 추적 관찰기간은 36개월(2~182)였으며 51예 중에서 생존한 40예(78%)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39개

월(3~182)이었다. 사망한 11예(22%)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28개월(2~93)이었고 사인은 모두 유두상 갑상선암의 폐 전이로 인한 호흡 기능 부전이었다.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예후인자들은 원발암 진단시 45세 미만 환자군 ($p=0.0404$) 및 수술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군($p=0.0448$), 동시성 폐 전이군($p=0.0402$), 단독 폐 전이군($p=0.0002$), 폐 전이 병소의 방사성 요오드 흡착군($p=0.0001$), 폐 전이에 대해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치료군($p < 0.0001$)이었고 성별, 수술방법, 근치 절제, 종양 크기, 갑상선의 침습, 국소 경부 림프절 전이, 폐 전이 증상 발현의 인자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. Cox모형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원발암 진단시의 연령($p=0.0200$)과 폐 전이 치료로서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치료($p < 0.0001$)만이 의미있는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규명되었다. 대상군의 5년과 10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각각 81%와 48%이었다.

결론 : 폐 전이된 유두상 갑상선암 환자는 원격 전이가 없는 일반적인 유두상 갑상선암에 비해 예후는 불량하다. 그러나 유두상 갑상선암에서 폐 전이가 발견된 경우에도 유두상 갑상선암 진단시 저연령인 경우와 폐 전이 치료로서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상당한 생존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.